

4. 성령님은 누구신가?

<같이 읽을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요14:16,17)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요?

또 성령님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1. 먼저 성령님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시다. 다음의 성경 구절을 찾아서 써 봅시다.

마태복음 3:16

사도행전 2:3

성령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위에서 읽어 본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은 ‘비둘기의 모양’이었고,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의 모습은 ‘불의 혀’와 같았습니다. 이러한 말씀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님은 어떤 모양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혹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영’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라는 말은 ‘숨, 호흡’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뒤 호흡(루아흐), 즉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자 움직이는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루아흐’라는 히브리어가 신약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에서는 ‘프네우마’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숨이나 호흡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 즉 성령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 없는 성령을 ‘비둘기’나 ‘불의

혀'와 같다고 했던 것은 성령의 다양한 특징 중 하나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한데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성령은 순결한 모습으로 그리고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성령은 뜨겁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임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처럼 '하나님의 영', 즉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는 등 은사적인 측면에 대해서만 생각하다 보니 성령을 '기능적인 면'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성령은 곧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2. 그러면 성령님은 왜 인격적인 분인지를 다음의 성경 구절을 찾아서 써보면서 확인해 봅시다.

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에 때문에 (로마서 5:5)

② 근심하는 분이기에 때문에(에베소서 4:30)

③ 우리를 안타까워 하시며 탄식하는 분이기에 때문에(로마서 8:26)

3.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 있는지 다음의 성경 구절을 찾아서 써 봅시다.

요한복음 14:16

‘보혜사’라는 말은 원어인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톤(Παράκλητον)’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협조자**’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보호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권에서 많이 보는 성경에서는 ‘**카운셀러(counselor)**’나 ‘**돕는 분(helper)**’ 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말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으로 도우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17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적인 교훈이나 우리에게 고상한 교양을 주는 말씀 정도로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셔야지 성경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깨닫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4.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시다.

① 생명이 있게 하십니다. (창세기 2:7)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을 흠으로(창2:7)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창1:26),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흠덩이와 같이 아무 데도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 있으나 무덤 속에 있는 마른 뼈처럼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갔을 때 이들이 변해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죽은 것과 같고 반대로 아무리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군대’와 같이 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분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12:3)

③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8)

사도행전 1:8절에서는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지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속 사람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습관 혹은 삶의 자세 같은 것은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짐을 거듭해도 실패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힘입게 될 때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었던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는 ‘내적 변화’라고 하며, 요한복음 3:3절에서는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④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8-11절까지를 읽고 12:11절을 써 봅시다)

⑤ 우리를 연단(훈련)시키십니다. (마가복음 1:12)

성령께서는 때로는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들도 인생의 광야와 같은 거칠고 힘든 환경으로 몰아내셔서 고난을 당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들이 인생의 환난을 당하게 될 때 그것이 나의 믿음을 끌어 올리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 훈련을 잘 통과하게 되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⑥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4:3,4)

성도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가족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육체의 욕망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자기를 누구하고든 화목하게 지내게 됩니다.

⑦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22,23)

5. 위에서 제시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실까요? 다음의 성경 구절을 찾아서 써 봅시다.

① 회개할 때 (사도행전 2:38)

② 기도할 때 (사도행전 1:14, 2:1)

사도행전1:14

사도행전2:1

③ 말씀을 들을 때(사도행전10:44)

위에서 본 것처럼 성경은 우리가 회개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꼭 이 세 경우만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찬송을 부를 때도,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을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세례와 성령충만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성령세례’와 ‘성령충만’이 그것입니다. ‘성령세례’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되는 ‘일회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을 할 수는 있지만 ‘성령충만’하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충만’하게 되면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온전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칭의’, 즉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충만한 사람은 단순하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성결’하게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충만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세례는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성령충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경건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과 싸우게 될 때 주어집니다.

사도행전 19:2절을 보면 제3차 전도사역 기간에 에베소를 방문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 즉 바울이 2차 전도사역을 마칠 때 잠깐 들러서 복음을 전했다 때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들이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고 ‘회개

게 하는 세례'만을 받았다고 하자 바울이 그들이 성령 받기를 원하며 안수하게 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다시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 왜 제일 먼저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어보았던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을 받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위의 내용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아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성령충만하기 위해서 영적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게 될 때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

은혜의 하나님,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항상 성령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이지 않는 마귀의 유혹과 싸워 이기게 해 주시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충만한 은혜로 성도들과는 항상 은혜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